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만족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박옥희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A Convergence Study for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yllabus

Ok-Hee Park

Ju Si Gyeong Liberal Arts College,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P사립대학교의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수업계획서의 실체를 파악하고 개선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P대학교 재학생 99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현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학년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수업계획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p < .05$). 수업계획서의 11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상하 각 10%선 내의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알아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상위집단은 '시험', '과제', '담당교수정보'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았고, 이 부분은 상하집단간 차이도 제일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업계획서 개발에 대한 교육적 함의 및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구성요소,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 인식, 수업계획서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학습자 대상 설문 및 면담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syllabus and their satisfaction of its components. A survey was conducted of the whole student body in a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city. 996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emales or upper grade students showed a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syllabus than males or lower grade students. The group who positively perceived satisfaction of the syllabus showed less satisfaction of the syllabus components. The subjects evaluated the details or directions of the categories of Exams, Assignment, and Instructors' information were insufficient or incorrect.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syllabu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yllabus, Component of syllabus, Students' perception for syllabus, Students' satisfaction for components of syllabus, Survey & interview for participants

1. 서론

세계화와 국제화의 중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대학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최근 수업계획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업계획서는 '학습자에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1]이고,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수업에 대한 동의 및 합의의 계약이자 의사소통의 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 Chai University in 2018

Received March 27,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May 4, 2018

Published June 28, 2018

구[2]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업계획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학습자는 수업계획서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고, 교수자는 수업계획서에 수업에 대한 열성, 전문성, 책무성을 보여줌으로서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 믿음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수업계획서를 이루는 핵심은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components)로 수업계획서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3].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용어와 의견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수업계획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교과목 정보, 교수자 정보, 학습목표, 수업방법, 교수매체,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 주차별 강의내용 등을 대략적으로 들 수 있다[4,5].

수업계획서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에서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문서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실험대학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계획서가 도입되었지만, 당시에는 실험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조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이후로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6]. 이로 인해 교수들의 수업계획서 작성과 완성도가 부족하고,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7,8].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간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9], 수업계획서 모형 개발[4, 10-13],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14-16]정도가 있다.

본 연구는 P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 수업계획서의 실체를 파악하고 개선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의 사용자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P대학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별, 학년별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수업계획서 구성요소에 대한 상하집단별 만족도는 어떠한가?

수업계획서는 ‘실라버스(syllabus)’, ‘강의계획서’, ‘강

의지도안’, ‘수업지도안’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기단위로 진행되는 대학 수업에 대한 계획서의 의미로서 ‘수업계획서’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또 이 연구는 P대학 교육위원회에서 실행한 ‘표준강의계획서 개발 연구’[17]의 자료를 재분석한 2차 연구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D광역시에 위치한 P사립대학 재학생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교내 LMS에 탑재된 구글 서베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안내를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150명이었다. 이 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조사내용 중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996부이다. 설문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었다.

2.2 연구도구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1차 설문지는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Kang 과 Lee(2013)[13], Oh(2016)[14]의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임의의 한 개 반을 선정하여 파일럿팅을 실시하여 신뢰도검사(cronbach's α)를 하였다. 신뢰도 검사결과는 .871로 나타났다. 이 설문지에 대해 P대학 교육과정 전문위원 5명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업계획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문항 1-5번), 둘째, 본교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문항 6-10번), 셋째, 본교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문항 11번-21번)를 묻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업계획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체크리스트로 알아보았고,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과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5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매우 만족한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를 5점으로 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이유나 추

가설명 등을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P대학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는 크게 11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1)담당교수정보(담당교수, 연구실번호, 이메일, 연락처, 연구실), (2) 수업개요, (3) 수업의 목적과 목표, (4) 수업일정 및 내용(주차별 계획), (5) 교재(주교재, 참고문헌), (6) 수업방법(강의, 토론, 프로젝트, 발표, 견학/답사, 모듬 활동), (7) 수업매체(판서, 유인물, 컴퓨터, 전자철관, 동영상), (8) 평가방법(중간, 기말, 과제, 퀴즈, 세미나, 참여도), (9) 과제(유형, 횟수, 제출형식, 평가기준, 제출기한), (10) 시험(횟수, 서술형, 객관식, 문제수), (11) 출결(출석, 결석, 지각, 휴강에 대한 규정)이다.

설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도구로는 SPSS 22.0 버전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기법으로는 기술통계, 일원배치분산분석, 교차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업계획서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습자들의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고,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의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96)

Variables		Frequency(%)
Gender	Male	433(43.5)
	Female	563(56.5)
Grade	Freshman	552(55.4)
	Sophomore	156(15.6)
	Junior	184(18.5)
	Senior	104(10.5)
Major	Science/Engineering	242(24.2)
	Humanities	124(12.4)
	Social Science	280(28.2)
	Arts/PE	350(35.2)
Favorite field	Liberal Arts	232(23.3)
	Major	764(76.7)
When the syllabus is searched	Before registering	552(55.4)
	When registering	272(27.3)
	At the first class	146(14.6)
	Never considered	26(2.7)

Table 1은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업계획

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이다. 총 5문항으로 성별, 학년, 전공, 관심영역 과목, 수업계획서를 처음 접하는 시점에 관한 조사이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비율(56.5%)이 남학생(43.5%)보다 12% 정도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비율이 높았으며(55.4%), 나머지 2학년(15.6%), 3학년(18.5%), 4학년(10.5%)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Arts & Physical Education) 학습자가 제일 많았고(35.2%), 이어서 사회계열(Social Science) (28.2%), 자연·이공계열(Science/Engineering)(24.2%),인문계열(Humanities) (12.4%)의 순이었다. 다음,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수업계획서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의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76.7%). 마지막으로 수업계획서를 처음 접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수강신청 전에 수업계획서를 본다’는 학습자가 제일 많았고(55.4%), ‘수강신청 할 때 본다’는 응답(27.3%)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수업 첫 시간에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를 나누어 줄 때 처음 본다’는 응답(17.3%)과 ‘학기 내내 수업계획서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2.7%)으로 이루어져있었다.

3.2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총 5개의 문항(6번-10번)으로 세분하여 성별, 학년별로 알아본 결과 각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성별, 학년별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3.2.1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perception on syllabus by gender (N=996)

Q	Gender	N	Mean	sd	t	p
6	Male	433	3.47	.871	-7.04	.00
	Female	563	3.85	.817		
7	Male	433	3.34	.807	-3.46	.00
	Female	563	3.52	.825		
8	Male	433	3.36	.897	-2.56	.01
	Female	563	3.51	.940		
9	Male	433	3.36	.814	-2.47	.01
	Female	563	3.49	.781		
10	Male	433	3.10	.874	-.044	.97
	Female	563	3.10	.881		

Table 2는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별에 따

른 인식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설문 문항 10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5개의 문항 중 6번 ‘수강계획서는 나의 수강신청 결정에 도움이 된다’에 남학생(3.47)과 여학생(3.85) 모두 가장 높은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문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 6번 ‘수강계획서는 나의 수강신청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3.85)이 남학생(3.47)보다 수업계획서가 수강신청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 < .05$). 설문 7번 ‘수업계획서는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3.52)이 남학생(3.34)보다 수업계획서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p < .05$). 설문 8번 ‘나는 학기 중에 수업계획서를 참고 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3.51)이 남학생(3.36)보다 수업계획서를 더 많이 참고하였다($p < .05$). 설문 9번 ‘수업계획서는 담당교수의 수업과 일치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에 대해 여학생이(3.49) 남학생(3.36)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5$).

3.2.2 학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perception on syllabus by age (N=996)

Q	Age	N	Mean	sd	F	p
6	* FR	552	3.51	.795	17.74	.00
	SO	156	3.92	.880		
	JU	184	3.85	.890		
	SE	104	3.96	.924		
	Total	996	3.69	.861		
7	1	552	3.32	.780	9.21	.00
	2	156	3.53	.799		
	3	184	3.60	.875		
	4	104	3.65	.879		
	Total	996	3.44	.822		
8	1	552	3.35	.860	4.94	.00
	2	156	3.49	.940		
	3	184	3.61	.997		
	4	104	3.59	1.039		
	Total	996	3.44	.924		
9	1	552	3.40	.763	1.01	.39
	2	156	3.51	.758		
	3	184	3.45	.841		
	4	104	3.50	.945		
	Total	996	3.44	.798		
10	1	552	3.06	.801	.96	.41
	2	156	3.16	.876		
	3	184	3.15	1.000		
	4	104	3.14	1.028		
	Total	996	3.10	.878		

* FR=Freshman, SO=Sophomore, JU=Junior, SE=Senior의 약자이다.

Table 3은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설문 문항 9번 ‘수업계획서는 담당교수의 수업과 일치한다’와 10번 ‘현재의 수업계획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설문 6, 7, 8 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설문 6번 ‘수강계획서는 나의 수강신청 결정에 도움이 된다’에는 4학년의 응답이 제일 높았고(3.96), 이어서 2학년(3.92), 3학년(3.85)의 순이었고, 1학년의 인식이 제일 낮았는데(3.51), 1학년의 응답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 7번 ‘수업계획서는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에는 4학년의 응답이 제일 높았고(3.65), 이어서 3학년(3.60), 2학년(3.53)의 순이었고, 1학년의 응답이 제일 낮았고(3.32), 이는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는 결과였다.

설문 8번 ‘나는 학기 중에 수업계획서를 참고 한다’에 대해 3학년의 응답에 가장 높았고(3.61), 이어서 4학년(3.59), 2학년(3.49)의 순이었고, 1학년의 응답률(3.35)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3.3 수업계획서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

다음은 P대학 수업계획서의 11개 구성요소에 대한 집단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 수준의 상하 10%를 추출하여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상위집단 10%에는 108명이 해당되고, 하위집단 10%에는 97명이 해당되어 전체 205명에 대한 상하집단별 만족도의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업계획서의 11개의 구성요소는 설문지에서는 11번 ‘담당교수정보’, 12번 ‘수업개요’, 13번 ‘수업의 목적과 목표’, 14번 ‘수업일정 및 내용’, 15번 ‘교재’, 16번 ‘수업방법’, 17번 ‘수업매체’, 18번 ‘평가방법’, 19번 ‘과제’, 20번 ‘시험’, 21번 ‘출결’로 표시되었다.

Table 4는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하집단별 만족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업계획서 11개의 구성요소 중 ‘담당교수 정보’(11번), ‘수업의 목적과 목표’(13번), ‘과제’(19번), ‘시험’(20번), ‘출결’(21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Table 4. Satisfaction on components of the syllabus between groups (N=205)

Q	Higher group (n=108)		lower group (n=97)		t	p
	mean	sd	mean	sd		
11	2.81	1.39	2.38	.92	2.55	.01
12	2.71	1.26	2.45	.83	1.78	.08
13	2.79	1.29	2.44	.82	2.25	.03
14	2.81	1.37	2.57	.97	1.43	.16
15	2.85	1.41	2.66	1.08	1.09	.28
16	2.84	1.36	2.68	1.04	.96	.34
17	2.57	1.31	2.45	.91	.76	.45
18	2.81	1.43	2.60	1.05	1.17	.24
19	3.00	1.47	2.56	.95	2.54	.01
20	3.07	1.49	2.58	.98	2.79	.00
21	2.94	1.46	2.55	1.01	2.27	.03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성요소에 대해 집단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은 ‘시험’(3.07), ‘과제’(3.00), ‘출결’(2.94), ‘담당교수 정보’(2.81), ‘수업의 목적과 목표’(2.79)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시험’과 ‘과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다가 평균 3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이들 항목에 대한 불만족은 상위집단 학생들의 자유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다.

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해요 시험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문항 수나 문제 유형은 어떤지 보통 첫 시간 OT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듣고 수강신청 변경을 하곤 하는데 그게 수업계획서에 미리 나와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제발 과제있는 거 제대로 적어주세요 ... 과제물의 유형과 점수표 횟수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제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 주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의 기준을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출결은 교수님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정확히 기재해주기를 바랍니다 ... 출결관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면담가능한 시간이라고 언급되어있어서 그 시간에 교수님께 찾아간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연구실에 게시지도 않고, 메일에 답장도 없었다. ... 강의계획서에 교수님

연락처나 연구실 위치가 안 나와 있다

한편, 하위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구성요소는 ‘시험’(2.58), ‘과제’(2.56), ‘출결’(2.55), ‘수업의 목적과 목표’(2.44), ‘담당교수 정보’(2.38)순으로 상위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각 항목이 평균 2.5내외로 하위집단은 수업계획서 구성요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수업계획서 구성요소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큰 것부터 보면, ‘시험’(0.49), ‘과제’(0.44), ‘담당교수 정보’(0.43), ‘출결’(0.39), ‘수업의 목적과 목표’(0.35)순이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4년제 P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과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성별로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계획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계획서가 수강신청 결정에 도움이 되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계획서를 학기 중에 많은 참고하였다. 수업계획서에 대한 성별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수업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태도가 좋았던 선행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17].

둘째,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학년별로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고학년일수록 수업계획서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른 수업계획서 활용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6]. 저학년 특히 일학년들은 대체로 수업계획서의 활용이 낮았는데, 아직 수업계획서에 대한 필요나 활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학년을 대상으로 수업계획서의 중요성과 활용에 관한 안내가 학교와 과 차원에서 상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수업계획서의 11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 수준의 상하 10%에서 추출하여 알아본 결과, ‘담당교수 정보’, ‘수업의 목적과 목표’, ‘과제’, ‘시험’, ‘출결’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 .05$). 이 항목에 관해 집단별,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로는 상위집단에서는 ‘시험’, ‘과제’, ‘담당교수 정보’에서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하위집단에서는 수업계획서의 전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정도로 나타났다. 상하집단간 비교에서는 ‘시험’, ‘과제’, ‘담당교수 정보’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항목에 관한 상위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고, 이들의 자유 서술을 통해서도 이 항목에 대한 불만을 알 수 있었다.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14]. 선행연구에서는 수업계획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수업의 목표 및 개요’, ‘수업운영방식’을 자주 참고하였고,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일수록 ‘성적평가방법’이나 ‘수업일정’을 자주 참고하였다. 수업계획서에서 자주 참고하는 항목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지만, 두 연구는 학습자들이 수업계획서에서 기대하는 바가 다양하다는 것과 수업계획서가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고,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이 P대학의 재학생 10%정도로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수업계획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교수자의 입장에서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수업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 공간이자 상호작용의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교수자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이 수렴된 수업계획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개발된 수업계획서의 실제적 적용을 통해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 연구결과가 향후 P대학교 수업계획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1] L. B. Nilson. (2003). *Teaching at its best*. Bolton, MA:

Anker Publishing Company, INC.

- [2] J. M. Statterry & J. F. Carlson. (2005). Preparing an effective syllabus: Current best practice. *College Teaching*, 53(4), 159-164.
- [3] K. Matejka & L. B. Kurke. (1994). Designing a great syllabus. *College Teaching*, 42(3), 115-118.
- [4] H. R. Jung. (2007). *Un analysis of undergraduate course syllabus and development of models*, Ph.D.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 [5] J. Parkers & M. Harris. (2002). The purpose of syllabus. *College Teaching*, 50(2), 55-61.
- [6] S. Y. Jeon. (1997). *University Curriculum and courses*. Seoul: Hakjisa.
- [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613093308335>.
- [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1408190079935&nv=Y>
- [9] S. H. Lee. (1987). *University Curriculum*.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10] I. S. Choi, H. S. Lee, G. H. Lee & S. J. Kim. (2012). A detailed analysis of creativity courses provided by prestigious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2), 179-199.
- [11] H. S. Kim & H. S. Kim. (2009). Dynamic syllabus composition system considering the priorit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2(2), 13-22.
- [12] S. Y. Kim. (1991). Strategy of the Usage and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Higher Education*, 49(1), 101-105.
- [13] H. S. Chung & J. M. Kim. (2015). Design of semantic models for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convergence of ontology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127-134. DOI: 10.15207/JKCS.2015.6.3.127.
- [14] S. H. Kang & E. J. Lee. (2013). A Study of Learner's Usage and Satisfaction by the Levels of Perception of the Course Syllabus: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1), 31-61.
- [15] M. J. Oh. (2016). Study on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specificity of syllabu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9-46. DOI: 10.22251/JLCCI.2016.16.11.29
- [16] E. J. Ryu & J. H. Park. (2013). A study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related to the syllabus-based on the beauty related department in the 4-yea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2), 102-111.

- [17] J. Y. Park, S. W. Kim, W. H. Moon, O. K. Park, G. B. Lee & I. S. Choi. (2017). *Standardized syllabus development report*.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박 옥 희(Ok Hee Park)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불어불문학과)
- 1998년 2월 : 뉴욕주립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공학 석사)
- 200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영어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일반, 교육과정 개발, 메타분석,
- E-Mail : okpark@pcu.ac.kr